

876. 학생들이 교과서와 공책을 가방에 () 나갈 준비를 했다.
① 드러눕고 ② 쓰러지고 ③ 움켜쥐고 ④ 집어넣고
877. 그는 집에 도착하자 가방을 () 바로 침대 위에 누웠다.
① 내려놓고 ② 접어들고 ③ 건네받고 ④ 집어들고
878. 발목이 삐어서 걷지 못하는 친구를 () 병원에 갔다.
① 업고 ② 굽고 ③ 접고 ④ 눕고
879. 내 옷차림이 () 친구들이 놀렸다.
① 약하다고 ② 정직하다고 ③ 촌스럽다고 ④ 썩스럽다고
880. 할머니는 비가 왔다 하면 무릎이 쿡쿡 () 힘들어하신다.
① 눌린다고 ② 비빈다고 ③ 질린다고 ④ 찌신다고
881. 길이 너무 미끄러워서 친구의 팔을 꼭 () 걸었다.
① 붙들고 ② 뒤집고 ③ 앞서고 ④ 기대고
882. 언니는 자꾸 자기 생각이 맞다고 () 내 말을 안 들으려고 해요.
① 우기고 ② 조르고 ③ 달래고 ④ 당기고
883. 북극에 사는 동물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추위를 () 있다.
① 비웃고 ② 속이고 ③ 설레고 ④ 견디고
884. 삼촌은 한동안 주가가 오를 테니 주식을 많이 () 조언했다.
① 내밀라고 ② 접수하라고 ③ 소비하라고 ④ 사들이라고
885. 만원 버스를 타고 가다가 실수로 옆 사람 발을 () 밟았어요.
① 밟고 ② 꺾고 ③ 뽑고 ④ 누르고
886. 우리 가족은 강아지를 애완동물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한 명으로 () 있다.
① 여기고 ② 택하고 ③ 통하고 ④ 치르고

887. 아는 사람인 줄 알고 어깨를 툭 () 보니 모르는 사람이었다.
① 대고 ② 치고 ③ 만지고 ④ 건드리고
888. 그는 들고 있던 그릇을 놓쳐서 () 말았다.
① 고치고 ② 뚫리고 ③ 빠뜨리고 ④ 깨뜨리고
889. 공짜를 너무 좋아하면 안돼요. 값을 제대로 () 먹어야지요.
① 말리고 ② 치르고 ③ 맞서고 ④ 흘리고
890. 나는 아들이 수영장에서 노는 모습을 밖에서 한동안 () 있었다.
① 알아보고 ② 둘러보고 ③ 지켜보고 ④ 몰라보고
891. 입시 정책에 대해 대학측과 학생측의 () 차이가 커서 좀처럼 좁혀지
지 않는다.
① 시력 ② 견해 ③ 반대 ④ 사고
892. 인간은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다양한 방식으로 () 한다.
① 접근 ② 연설 ③ 표현 ④ 신고
893. 일부 학생과 학부모들은 갑자기 바뀐 입시 제도에 불만을 () 있다.
① 품고 ② 밀고 ③ 내고 ④ 엮고
894. 우리나라에서는 월드컵 () 을/를 앞두고 곳곳에 축구 경기장을 짓는
중이다.
① 개최 ② 시절 ③ 실시 ④ 예고
895. 우리 부부는 우는 아기를 겨우 () 밀린 집안일을 하나하나 해나갔다.
① 치우고 ② 세우고 ③ 비우고 ④ 재우고

896. 그는 무척 피곤했는지 집에 돌아오자마자 이불을 () 누웠다.
① 개고 ② 접고 ③ 깔고 ④ 치우고
897. 음식이 너무 뜨겁네요. 좀 () 나서 먹을게요.
① 데우고 ② 재우고 ③ 식히고 ④ 끓이고
898. 그 선수는 다친 곳을 급히 붕대로 () 계속 경기를 뛰었다.
① 감고 ② 돌고 ③ 메우고 ④ 덮이고
899. 한국과 중국, 일본은 서로 () 미세 먼지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로 했다.
① 등지고 ② 손잡고 ③ 발뺌하고 ④ 귀기울이고
900.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이 손에서 미끄러져서 () 말았다.
① 깨지고 ② 쓰러지고 ③ 무너지고 ④ 부러지고